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회의의 명칭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개최기관 : 과천시의회
- 일 시 : 2018. 10. 25.(목) 14:00 ~ 14:30
- 장 소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1층)
- 참석위원 : 6명
 - 박종락 위원장, 문미옥 부위원장
 - 김현석 위원, 서정미 위원, 정재성 위원(※ 제안설명 : 류종우 의원)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방법 설명
 - 부위원장 선출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의 결

□ 회의 내용(회의록)

○ 의사팀장 양용직 저는 의사팀장 양용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기타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류종우 의원님께서서는 공무국외여행 제안설명자이시므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본인 해당 심사 건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부의

장이신 박종락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의진행은 박종락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방금 소개받은 박종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종락입니다.

단풍의 계절이 절정인데 이렇게 시간 내준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외연수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에 대한 인사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문미옥 위원** 저는 ○○○○○○○○ 재직하고 있습니다. .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열심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미 위원** 회의 와서 자기소개해 보기는 처음이고요. 저는 ○○○○○○○ 재직 중이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열심히 주어진 부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재성 위원** 저는 ○○○○○○○ 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왠지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4개월차 됐지요? 4개월차 시의원인 김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공무국외여행 계획 잘 심의해서 멋진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종우 의원** 안녕하세요? 류종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외연수라는 게 단순히 연수라는 목적이 아니라 과천시에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좋은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이 연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종락**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년간 위원으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남자이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여성 분이 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정미 위원** 저 추천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종락** 네.

○ **서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자, 여성도 좋지만 시의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학계에 있는 분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연장자이신 문미옥 선생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정재성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문미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문미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에 의사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도야마현과 후쿠이현으로 가는 공무국외여행 계획 1건을 심사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류종우 의원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미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종락 네.

○ 서정미 위원 기왕이면 심사기준표가 있는 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들으면서...

○ 위원장 박종락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의 중)

○ 문미옥 위원 심사기준표는 아직 마련이 안 됐나 보네요? 그냥 통과, 안 통과 정도 그러신가 보네요.

○ 류종우 의원 여부로 결정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아니라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먼저 위원들에게 얘기 나눠드린 게 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섬세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으

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류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 여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의 도야마현과 후쿠이현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 목적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립할 수 있는 도시 과천을 위해 해외 지방 강소도시를 시찰하고,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과 사례 수집입니다.

일본의 도야마현 도야마시와 후쿠이현 후쿠이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도쿄에서 4시간 거리로 떨어져 있는 변방의 소도시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대도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지방도시였습니다.

반면 이곳은 일본 내 행복도 1위, 초·중생 학력 1위, 노동자 실수입 1위, 대졸 취업률 1위를 비롯해 객관적인 모든 지표에서 대도시를 압도하는 마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소멸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넘게 행복도 1위를 지키는 이곳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 우리 과천에 분명히 적용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야마현과 후쿠이현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살리고 콤팩트시티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교육 분야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였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 사실 공교육에서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진행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콤팩트시티라는 정책은 지방 소도시에서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편의시설을 도심으로 모으고 도심과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교통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도야마시는 주민들이 도심으로 오는 것을 편리하기 위해 노면 트램이라는 것을 도입하였고 공공 자전거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특히 손자와 노인이 동행하는 경우 공공시설, 저희 같은 경우에 아해박물관이나 추사박물관 같은 것을 무료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면서 그 노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옴과 동시에 지갑이 열리게 되었고, 그 지갑이 열리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전례가 있어서 그와 같은 사례를 저희가 배우고자 가고 싶습니다.

후쿠이시의 경우는 신칸센 연결을 계기로 시가지를 개조하고 역 주변으로 도시를 활성화시켜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여행 중 도야마 시청과 후쿠이 시청, 그리고 학교 등을 방문해 교육분야와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행기간 할 수 있는 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도시 재생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찾아 체험하고 돌아와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과천시 앞으로 만들어야 할 청사진을 만들고 연구하고자 본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의원님,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연수의 가장 큰 핵심이 아무래도 콤팩트시티 아니겠습니까?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나마 콤팩트시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류종우 의원 문구대로 해석하시는 바와 같이 콤팩트시티란 것은 도시의 기능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천이라는 도시가 인구 5만의 소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는 정말 괜찮은 계획도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과천은 5만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와 청계산으로 막혀 있고 도시 확장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되면서 예전에 저층단지에 있었던 단지 간 소통도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고민해 봤을 때 과천시를 보행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해서 걸어다니는 도시, 그리고 집약된 도시, 상업지역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5

개 국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야마현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정말 작은 소도시였지만 정책에서 콤팩트시티라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정말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과천시도 기존에 청사가 있었던 청사 배후도시였지만 청사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 도시를 살려나가야 되는 게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도시, 가까운 일본을 먼저 가서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행경비 보면 제갈임주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하루 늦게 가시는 것입니까?

○ 류종우 의원 아,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 류종우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일비 항목이나 식비 항목이 공무 여행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평의원이 할 수 있는 비용과 의장과 부의장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상이하게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루 늦게 가거나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법에 의거한 비용입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미옥 위원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하게 되네요. 말씀도 너무 잘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듣기도 좋습니다.

콤팩트시티 5개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 류종우 의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했습니다. 유럽하고...

○ 문미옥 위원 여러 나라, 이탈리아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유사한 특징이고 가까우니까 일본부터 연구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 류종우 의원 그리고 정서상 아시다시피, 저도 전공적으로 얘기할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군락으로 시작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할 때 ‘경기도 과천시 어디어디’ 해서 큰 도시에서 점점 점차로 옵니다.

반면 미국은 광활한 평야에서 나를 중심으로 개척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도시로 진행하지요. 주소를 할 때도 내 집부터 얘기할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귀결되는, 어쩌면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달된 도시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가 가장 동양적인 의식사상이 비슷한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 문미옥 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른 어떤 나라를 또 앞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5군데 다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습니다.

○ 류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 문미옥 위원 나중에 또 여쭙겠지만 여행일정을 보면 주로 중학교의 토론식 수업,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도 중학교의 토론수업에 굉장히 관심 가지신 것 같은데요.

○ 류종우 의원 네, 맞습니다.

○ 문미옥 위원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 중학교의 교육방식의 혁신적 방안도 중요한데 우선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저출산 대책과

직결되는 것은 영유아 쪽의 보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기가 특화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그쪽은 별로 재미없나요? 중학교만 유명한가요?

○ 류종우 의원 있습니다. 도야마시 같은 경우를 과천시에 비교해 볼게요. 과천시에는 ‘엄마랑아이랑’이라는 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보육프로그램이 한 4시간인가 3시간밖에 활용되지 않아요.

반면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육선생님이나 직원들 전부 다 공무원이고 운영하는 목적이 24시간,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일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도야마시 방문 시 어떻게 운영 되는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시민들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 문미옥 위원 저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안심이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에서는 항상 영유아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영유아 쪽을 어떻게 해서 특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시의 수입하고도 연결하는 어떤 정책을 썼을 것도 같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특화된 뭐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돈을 떨구고 가는 뭔가의 정책도 하지 않았을까, 워낙 조그마한 도시여서 그것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 서울이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뭐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중학생에게 특화된 뭔가를 콤팩트시티를 하면서 플러스알파로 과천 주변에 있는 커다란 서울, 안양 이런 데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그런 것도 있는지 보고 와주시면 좋겠네요.

○ 류종우 의원 네, 맞습니다. 솔직히 공부했을 때 아까 도야마시 노면 트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트램 이용료를 어떻게 하나면 도야마시는 관내에 있는 꽃집 있잖아요. 꽃집이나 물건을 사게 되면 티켓을 줘요. 그 티켓을 가지면 노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100원이라고 하면 안 써요. 그런데 공짜라고 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오려면 뭐 하나만 사도 노면 전차 도시 교통을 공짜로 활용하니까 하루 더 묵게 되고, 잠깐 들렀다가 패싱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게 되는 도시가 되면서 머물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소비도 활성화가 되고요.

우리 과천시에 적극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런 선진사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류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 서정미 위원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있는 목적과 일정표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의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도 의회 비슷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류종우 의원 네, 맞습니다.

○ 서정미 위원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했을 때 잘 된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물론 우리 법 시스템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을 했을 때 의회라든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일정도 포함되

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학교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의회 의원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하고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잘 몰라서요.

○ 류종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서정미 위원 첨언인데요. 시의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떻게 시험을 봐서 두 분만 뽑으신 건가, 지금 여기 보면 네 분만 가셔서요. 제가 아는 박상진 의원님이 왜 포함 안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의회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1일부터 일본에 가는 것은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의원님하고 제갈임 주, 윤미현 의장님 네 분이 가고 그 다음에 박상진 의원님하고 김현석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은...

○ 서정미 위원 번갈아서 가시는군요?

○ 위원장 박종락 네. 시의회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도시만 전체적인 의원이 가는 것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가고, 또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눠서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서정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목적과 동기 및 배경하고 여행일정에서 적합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보완을 하시면 더 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11월 13일 화요일과 15일 목요일에 각 시청 방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콤팩트시티를 만들었던 도야마시 시장이 아마 이번이 3선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이분은 꼭 뵙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저희 일정에 시의회도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 상충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만든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여기 써 있는 화요일, 목요일에 도야마시, 시바에 시 이렇게 쓴 게 다 시청 방문이지요?

○ **류종우 의원** 네.

○ **문미옥 위원** 시청 방문하실 때 시의원님도 배석하시라고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요.

○ **류종우 의원**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청받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면서 ‘좀 나와주세요’ 하는 입장이라서요. 감사합니다.

○ **문미옥 위원** 그래도 초청받지 않아도, 저희도 시의원님 또는 국회의원님하고 학자들이 특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본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러 가는 것처럼 갈 때 이런 목적으로 간다고 요청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친절해서 일본 국기, 태극기 다 걸어주기도 하고 회의 마련해서 그쪽의 시장님, 시의원님, 때로는 국회의원까지도 배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씩씩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갔다 와서 성과보고회 할 때도 굉장히 멋지실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 오시고요.

○ **류종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다시 검토해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포함시켜서 연수 다녀오겠습니다.

○ **문미옥 위원** 교수들이 가도 그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의원님

들 가시면, 하여튼 오고 안 오고는 그들에게 맡기고 요청을 씩씩하게 해 보세요. 기대가 됩니다.

○ 류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재성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류종우 의원님의 의견이 여기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평소의 철학이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서 과천 콤팩트시티 기대도 해 보고요. 여기 다녀오시면서 결과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보고서를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류종우 의원 네.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별도로 위원한테도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종락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주실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보면서 우리 과천시 의원님들이 과천을 얼마큼 고민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대도 해 보고 관심도 더욱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류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이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공무해외연수가 되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재성 위원 김현석 위원님은 이번 기회에 못 가시나 보지요?

○ 김현석 위원 저는 다른...

○ 정재성 위원 다른 일정이 잡히셨군요?

○ 김현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시의원이 한꺼번에 갔을 때 공백이라든지 긴급사항 대응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 같이 갈까 고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눠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일정을 보니까 질문드릴 게 없네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 문미옥 위원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콤팩트시티 5개가 어디인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저도 나가서 공부해 봐야 되겠고, 이왕 나선 김에 5개국 직접 가시든 아니면 자료를 받든 연구하셔서 뭔가 멋진 안을 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류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 문미옥 위원 저희도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위원장님, 공무국의 해외여행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같이 안 갑니까?

○ 위원장 박종락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 문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 의사팀장 양용직 공무원은 따로이고, 이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만 심의하시면 됩니다.

○ 문미옥 위원 아, 이것만 하면 되군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이왕 여행을 가면 볼거리도 있고 목욕이라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여기는 뭘로 유명해요? 이것은 그야말로 궁금해서요. 류종우 의원님 스터디하셨을 것 같은데요.

○ 류종우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요. 오히려 혼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요.

○ **문미옥 위원** 저희는 학술적인 것 때문에 여러 번 오고가는 했는데 여기는 안 가봐서 궁금해서요. 그리고 콤팩트시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의 학자가 오거든요. 좀 여쭙 봐야 되겠네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네요.

○ **류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다른 위원님.

○ **서정미 위원** 저도 기대가 되고요. 5개국을 번갈아가면서 다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정재성 위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할 게 없네요.

○ **위원장 박종락** 저희도 고마운 게 류종우 의원님이 꼼꼼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같이 동행하는 의원으로서 참 기대도 크고 준비 잘했기 때문에 저희도 학습을 정말 제대로 잘 배워서 과천에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연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실망 안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기대가 됩니다.

○ **문미옥 위원** 만약에 다음번에 5개 시티 중 어느 나라를 혹시 가신다면 보통 저희는 가셨던 분 중에 한두 분은 반드시 같이 가거든요, 그래야지 동등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지도 않겠지요. 일곱 분 중에 어쨌든 서너 분은 움직이실 테니까 겹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든 부위원장님이든 누군가는 겹칠 텐데, 어쨌든 꼭 한두 분 정도는 공통적으로 가셔야 비교가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사실 돈만 있으면 다 같이 가시면 좋은데, 한두 분은 꼭 오버랩되게 하시는 게...

○ **류종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서명)

심의 결과 네 분 위원의 찬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